

## 제2절 여순사건의 발발과 전개\*

1948년 제1공화국이 수립되자 이에 대한 저항과 체제위기로 여순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의 발발배경과 원인을 엄밀하게 규명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여순사건이 직접적으로 여수에 주둔하고 있던 14연대의 반란으로 촉발되었지만 그것이 여수와 순천 그리고 인근 지역으로 신속하게 확산되었던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당시 여순지역 주민들의 의식상태와 계급적 상황까지 분명하게 정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글에서는 여순사건 당시를 기록하고 있는 여러 자료들 중 서로 상반되게 기록하고 있는 부분들은 엄밀한 검토를 통해 가장 객관성이 크다고 입증되고 있는 부분을 취하여, 여순사건의 배경과 발발·전개과정·피해상황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여순사건의 발발원인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첫째, 돌발적인 사건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것은 제주도 4·3사건을 진압하기 위해 14연대의 일부 병력을 파견하기로 결정하자, 좌익세력들이 반란에 대한 준비를 완벽하게 갖추기도 전에 돌발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남로당 중앙당에서도 미리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 이를 수습하는 상황이었고 남로당 전남도당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14연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여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주로 미군사고문단의 입장이다.

둘째, 압력분산설이다. 당시 제주도 유격대에 가해지고 있던 정부당국의 압력을 분산해 제주도의 혁명을 성공시키고, 이와 더불어 본토에 제2전선을 형성함으로써 전국적인 혁명을 이루기 위해 좌익세력들이 계획적으로 발발시켰다는 관점이다.

셋째, 미국의 결의실험설이다. 이것은 정치적인 요인에 더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여순사건을 남로당에서 세웠던 계획의 일환이라고 보는 것이다. 즉, 미국의 개입 정도가 어느 정도일 것인가를 시험해보는 동시에 새롭게 등장한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을 기초부터 흔들어놓겠다는 일련의 봉기로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시의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보기로 하자.

\* 제2절은 안중철(安鍾澈) 집필임.